

광양 '법정문화도시' 한걸음 가까이

광광부 '제5차 예비문화도시' 공모 3번째 도전 끝 선정 1년간 예비사업...최종 확정되면 5년간 100억원 지원

광양시가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한 발 더 다가갔다.

광양시는 시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5차 예비문화도시' 공모에서 세 번째의 도전 끝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동행하는 시민 교류하는 미래, 문화교역 도시 광양'을 비전으로 신청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이 최종 선정됐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

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한다.

공모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받고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해 최종 법정문화도시를 지정한다.

시는 지난 6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신청했고, 서면·현장·발표평가 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번 제5차 예비문

화도시는 전국 29곳 기초지자체가 신청했으며, 광양시를 비롯해 총 8곳이 지정됐다.

시는 10월~내년 9월(1년간)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해 실적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최대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제5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문화도시로의 전환과 혁신을 만들어낸 시민들의 힘에 감사드리다"며 "예비사업의 탄력을 받아 제5차 법정문화도시까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최초 식물도감 '한국의 들꽃과 전설' 기증



인요한(오른쪽) 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 공동이사장이 최근 구례군청을 찾아 '한국의 들꽃과 전설'(FLOWERS AND FOLK-LORE FROM FAR KOREA)을 전달한 뒤 김순호 구례군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 구례군과 고서 기증 전시·홍보

지리산 선교 유적지 보존과 계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과 구례군이 고서 기증 협약을 체결했다.

구례군에 따르면 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 인요한 공동이사장과 오정희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요한 공동이사장이 소장하고 있던 고서 '한국의 들꽃과 전설'(FLOWERS AND FOLK-LORE FROM FAR KOREA) 1점을 구례군에 기증했다.

이 고서는 선교사인 존 C 크레인 목사의 부인인 플로렌스 크레인이 지리산 야생화와 평양 모란봉 등을 그려서 1931년에 영어로 발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컬러 식물도감으로 여러 야생화 그림과 설화, 약효 등이 기록됐다.

미술에 천부적 소질이 있었던 크레인 부인은 1912년 남편을 따라 우리나라에 와 14년 간 머물며 조선 풍속도, 비각, 야생화 등을 그렸다. 자신이 그린 120여점으로 1933년 우리나라에서 회화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구례군과 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은 기증받은 고서를 활용한 기획 전시와 출판, 홍보 활동 등을 할 계획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

'순천 소녀시대' 할머니들 그림책 부산 간다

오늘부터 '우리가 글을...' 전시 출간 3년...1만8000부 판매 다음달 4일까지 4개 중학교 순회



순천 소녀시대 할머니 작가들.

순천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순천 소녀시대 할머니의 에세이 작품이 부산에서 전시된다.

순천시는 4일부터 5주 동안 '순천 소녀시대' 할머니 작가들의 작품이 부산 지역 내 학교 도서관에서 전시된다고 밝혔다.

'순천 소녀시대' 할머니 작가들은 순천의 대표 시민 그림책 작가다. 2019년 출간된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다' 에세이집은 현재까지 1만 8000부가 팔리는 등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다.

이번 전시는 지역 학생들에게 늦깎이 작가로 데뷔한 스무 명의 순천 할머니의 삶과 히로에라이 담긴 작품을 보여주고, 내년 4월에 열리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작품은 에세이집에 수록된 글과 그림 40점, 개

인별 도서 20권을 선보일 예정이다.

4일부터 14일까지 부산주례중학교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1일까지는 개성중학교, 24일부터 28일까지는 광주여자중학교, 31일부터는 11월 4일까지는 부산성지초등학교를 끝으로 전시는 마무리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 할머니들의 순수하고 개성 넘치는 작품에 담긴 따뜻한 마음과 온기를 우리 학생들이 보고 느끼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시문화원, 유물 42점 기증

여수시립박물관에 여수통제이공수군대첩비 탁본 등

여수시문화원(원장 정행균)이 여수시립박물관에 전시할 유물 42점을 기증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문화원은 보물 제571호인 여수통제이공수군대첩비 탁본을 비롯해 봉산동 벽수 1기, 고문서, 목공구 등 소장 유물 42점을 기증했다.

'여수통제이공수군대첩비'는 1615년 건립된 충무공 이순신 공훈 기념비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첩비이다.

가로 147cm, 세로 354cm 크기의 대첩비 탁본은 고 문정인 여수시문화원장의 소장품으로 지난해 유족 측이 문화원에 기증한 유물이다. 5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개최된 국립광주박물관 남도문화전 '여수, 그 시절의 바다'에도 출품됐다.

정행균 여수시문화원장은 "여수시립박물관에서 유물을 소장하는 것이 보다 많은 이에게 여수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길이라고 생각해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귀중한 유물을 기증한 여수시문화원에 깊이 감사드리다"면서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립박물관은 총사업비 280억원을 들여 여수 용천동 이순신공원에 건립될 예정이다. 2024년 개관을 목표로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시는 전시 유물 확보를 위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유물 기증 운동을 전개해 장서각 소장본보다 이른 시기 제작된 오형목의 '여수총쇄록' 필사본, 전라좌수영 수군 훈련용 교본첩인 '수조홀', 서예가 남재 송전생 선생의 작품 등 총 9000여점의 유물을 확보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 유자가공품 본격 생산체제

두원농협, 해협시설 준공

전국 최대 유자 산지인 고흥에 신식 유자가공사업소가 들어서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다.

고흥 두원농협(조합장 신선식)은 최근 두원면에 유자가공사업소(HACCP) 시설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공영민 고흥군수, 이재학 군의회 의장, 장승명 경찰서장, 전남도청 강요석 농축산식품국장, 박서홍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김태훈 군지부장, 각급기관 단체장과 조합원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 유자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최대 산지

인 고흥군에 소재한 두원농협은 농업인이 생산한 유자를 원료로 유자차 등 다양한 유자가공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고흥 유자는 국내시장 뿐만아니라 체코와 이탈리아 등 해외시장에서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21년 매출은 총 89억 3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수출액은 50억 6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0% 성장했다.

유자가공시설은 1993년 건립된 유자가공사업소의 생산시설 노후화, 지속적인 사업량 확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보호지원과 총 70억여원이 투입돼 지상 2층, 1127평으로 지하, 생산, 저온창고 등이 들어섰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

곡성군, 통영에서 2박3일 '가족힐링캠프'

곡성군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경남 통영에서 '통영 FUN할지도·가족힐링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지역 내 청소년 자녀를 둔 20개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2박 3일간 통영 금호리조트에서 숙박하면서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고 가족과 함께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즐기는 과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은 오는 8일까지 곡성군청 소년상담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대상자는 11일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캠프 참가비는 가족당 5만원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 구성원 모두의 마음 근육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